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 (시편 119:41-64)

The God that I met in His word (Psalm 119:41-64)

성경공부를 할 때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성경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나의 분깃이이다’ (57절)라고 외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Whenever we study the Bible, we should pray that our spirit would be saved by the awakening and understanding of the deepest meaning of the Bible. The psalmist wants to meet the God of love and comfort in the Bible and he cries, “You are my portion, O Lord” (v. 57).

1. 하나님의 사랑(41-48절)

4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증거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1. God's love(w. 41-48)

Verse 41 tells us not only about God's love but also His salvation. God saves us from our sins because of the fact that He loves sinner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Therefore, those who know God's love will obey Him and tell others about His love.

2. 하나님의 위로(49-56절)

성경을 연구하여 만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9, 52, 55절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옛 규례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목상만 하지 않고 찬송할 것입니다(54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 God's comfort(w. 49-56)

The God that people meet through studying the Bible is a unique comforter of their afflictions. The word 'remember' appears in verses 49, 52, and 55. The psalmist remembers God's promises and appeals to God. Memory is the origin of comfort. God's people remember His ancient laws and His name. In their sufferings they remember God's word and His name, and are relieved by God. Their sufferings help them understand God more deeply.

Those who receive God's comfort not only meditate on His word, but also praise Him (v. 54). When the Apostle Paul and Silas were in the Philippian prison, they praised the Lord.

3. 하나님 자신을 만나다(57-64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위로를 받기 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스펀전(Spurgeon)목사님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전심으로 그를 찾는 것, 그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 그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증거들을 좇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주의 규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 We meet God Himself(w. 57-64)

The purpose of studying the Bible is not simply to receive comfort or to know something about God, but to know God Himself and to possess Him. Charles Spurgeon once said that we look for him with all our heart, turn to Him, are relieved by him, keep company with His people, and experience His goodness.

The psalmist says, “You are my portion, O Lord.” Those who receive God as their portion become the possessors of everything. We should recognize this precious treasure.

Those who look for God's face seek God Himself. God will meet those who are looking for Him. The psalmist followed His testimony, obeyed His commands, remembered His law, and thanked Him for His decrees.

My beloved congregation!

As His chosen people, we have to meet our Lord through the continuous meditation of His law which is far greater than any other treasure in the world. In the place where we meet Him, we will be loved and relieved by Him.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loved b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든 보화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9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총 4천 3백 4십만원 지급

우리교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서문석 장로)는 지난 7월 24일(금) 장학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접수된 51건의 장학금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41명의 후보를 당회에 올려 2009년 하반기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2009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장학규정 제20조에 의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회생활에 열심인 학생들로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3명, 송암장학생(찬양대 솔리스트) 17명, 일반 장학생(대학생) 17명, 교역자·선교사 자녀 2명(대학생 1, 고등학생 1), 고등학생 2명 등으로 총 4천3백4십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009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생들이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기도한다.

2009년 하반기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 3명
김종일 최요섭 노재균
- <송암장학생>-찬양대 솔리스트 : 17명
주유진 신유경 손민혜 주현민 진현구 박혜진 김정은 권오영 박세영 김성현 김남욱 송영규 최영은 이실비아 최예은 강윤희 이현규
- <일반장학생>
-대학생 : 최나래 이윤지 한성에 박찬웅 임주현 김진우 류은수 김민태 임아름 김성국 박세아 오경미 이민주 홍하림 최선애 이민정 박한샘(17명)
-교역자·선교사 자녀 : 김영수 이평화(2명)
-고등학생 : 김수훈 장필립(2명)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9월7일(월) 오후 2시 개강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매년 2학기 개최하고 있는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한국교회 성장과 연합을 위한 교파신학의 정체성'을 주제로 9월7일(월)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학기는 1교시에는 이종운 목사의 소선지서 강해가 새로 시작되고, 2교시는 11주 동안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11개 교단의 저명한 목사(신학자)들이 강사로 각 교파신학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도 강의실이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교역자들로 차고 넘치도록 기도한다.

주제: 한국교회 성장과 연합을 위한 교파신학의 정체성
일시: 2009년 9월7일(월) - 11월16일(월) 11주간

날짜	1교시	2교시(교파)	성명(직임)
9/7	이종운 목사 소선지서 강해	대한 성공회	정철범 박사(대한성공회 전 주교)
9/14		기독교 한국루터회	엄진섭 박사(루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9/2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인환 박사(총신대 전 총장)
9/28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최운배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0/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김진섭 박사(기독교신학대학원 원장)
10/12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오영석 박사(한국신학대학교 전 총장)
10/19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기성)	조중남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전 총장)
10/26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기아성)	이영훈 박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11/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유해무 박사(고려신학대학원 교수)
11/9		기독교 대한감리회(기감)	김홍기 박사(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11/16		기독교 한국침례회(기침)	도한호 박사(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호산나대학 학장 선임 제 2대 학장에 박노철 목사

호산나대학 이사회는 호산나대학 개교 이래 학장직과 이사장직을 겸임 한 이종운목사에 이어 제2대 학장으로 박노철 목사를 선임하였다.

금주의 여름수련회

당회원 가족수련회 8/15(토) 아가페타운
청년1부 13일(목)-15일(토) 복지수련원
신혼가정부 14일(금)-15일(토) 별빛수련원

이번 주에도 여름수련회가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당회원 가족 수련회가 8월 15일(토) 하루 일정으로 아가페타운에서 이종운 목사와 박노철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섬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고 아가페타운 공사현장 봉사도 한다.

청년1부 수련회가 13일(목)-15일(토) 복지수련원(양평)에서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이종운 목사 정수길 목사 김은수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열린다. 또한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가 14일(금)-15일(토) 별빛수련원(강화도)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부부'를 주제로 서명철 목사와 한상은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각각 열린다.

계속되는 여름수련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한다.

러시아 김영호 선교사 사역 위해 성찬기 1세트 기증

러시아에서 노브고로드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김영호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무명으로 바친 현금으로 성례식에 사용할 성찬기 1세트를 보내기로 했다.

2009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8월31일(월) 오전 10시 개강

2009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은 8월31일(월) 오전 10시 서울성경대학 사도행전반 개강을 시작으로 각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모두 개강한다.

서울교회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본 프로그램에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이웃에 대한 전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사도행전 반	월 오전 10:00-11:00	정수길 목사	602호
에스겔 반	화 오전 6:00-7:00	한상은 목사	602호
여호수아 반	목 오후 7:30-8:30	서명철 목사	602호
데살로니가전/후서반	금 오전 6:00-7:00	이규정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2:00	박종민 목사의	601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2:00	서명철 목사의	101호
세계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이규정 목사의	602호
마리아학교	목 오전 10:30-오후 12:30	김은숙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금 오후 7:00-8:00	조슈아 조 목사	603호
서울음악학교(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9/6-11/8)	이영조 집사의 찬양대 지휘자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9/6-10/4)	한상은 목사의	905호
수화기초반(12주간)	목 오후 7:00-8:50 (9/3-11/20)	임규현 목사	606호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중간보고

여기는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주님의 군사로 무장된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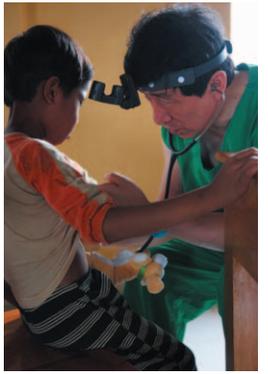


며 땅을 밟자마자 우리는 캄보디아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다음날 포병부대를 시작으로 단기선교가 시작되었고, 그 날 저녁 늦게 도착한 의료선교팀과 함께 본격적인 단기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는 의료사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사역, 이미용사역 등이 함께 어우러져 본격적인 단기선교 사역이 시작된 곳은 상이군인부대였습니다.

감사를 감사로만 그치지 않고 받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곳의 군부대 사역이 더 남아 있습니다. 1여단과 911부대입니다. 이 두 곳의 군부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수 1:3) 이 두 말씀을 받고 캄보디아 땅으로 향한 우리 단기선교팀은 주님의 군사로 무장된 마음으로 9박 10일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주일저녁 교회에서 잠을 자고, 권사님들의 수고로 준비된 간단한 주먹밥으로 배를 채우고 그간 받은 말씀을 품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1박 2일의 사역을 했는데 상이군인 부대는 말 그대로 군 복무 중 다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팔과 다리가 절



리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성도님들께 기도부탁드립니다. 비단 이곳의 군부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30명 단기선교팀원 모두도 단기선교를 통해 영적인 깊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늘 새벽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빌 때까지 기도의 굵은 줄이 계속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람.

- 캄보디아에서 단기선교팀 일동



간소화한 짐과 선교사님께 드릴 귀중한 노트북 컴퓨터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움직이다보니 어느덧 도착한 캄보디아 땅!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



다. 밤새도록 몰아치는 바람으로 인해 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섬길 교회, 먹고 잘 수 있는 집과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풍요로운



나의 하나님



전도는 나의 생명

이원의 권사(6교구)



서울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더위도 모르고 수요일 노방전도팀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자야 오늘도 백번만 인사하자” 이런 기쁜 마음으로 문 열어 놓은 곳은 경찰서부터 은행까지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갑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부끄러움도 없이 순례자를

안고 기뻐하며 걷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신 은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매일 전도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 잊지 않고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가페 타운이 잘 건립되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혼가정부 여름 수련회 초대인글

사랑으로 섬기는 부부

한상은 목사(신혼가정부 지도)

2009년도 신혼가정부(부장 홍일성 집사, 회장 권재현 집사)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금)~15(토) 이틀에 걸쳐서 강화도 별빛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부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수련회는 ‘신혼가정부에 속한 가정들이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수련회에서는 서명철 목사의 ‘사랑으로 섬기는 부부’라는 주제특강과 한상은 목사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일꾼, 그리고 그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이뤄지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서울교회 신혼가정부는 결혼한 후 3년 미만의 가정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따뜻한

특별찬양

주일저녁 특별찬양은 베들레헴찬양대의 솔로이스트 이승진(테너), 송영규(베이스) 성도의 독창과 중창으로 드러진다. 한국예수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진 성도는 국립오페라단 아카데미(국비장학생)에도 재학 중이며 송영규 성도는 안양시립합창단 상임단원으로 재직 중인 재원이다. 오늘은 ‘주가 축복하리라 (Meredith Willson)’ 외 2 곡으로 찬양 드리며 반주는 베들레헴 찬양대 피아니스트 박수강 선생이 담당한다.

모임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서울교회에 등록된 신혼부부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의 참석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1·2부 여름수련회 초대인글

섬기는 청년1,2부

김진경 성도 (청년1부 부회장)

권희순 성도 (청년2부)

저희 청년1부에서는 “섬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13일(목)~15일(토)까지 2박 3일 동안복지교회 수양관(경기도 양평)에서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가장 많은 청년의 때이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더 많은 지체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련회 표어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도 속해 있는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 섬김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청년1부 여러분, 당신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우리들 청년의 때로부터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진정한 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여 2009년 여름 수련회를 여기 가평 정동교회 수양관으로 자리하여 청년2부 회원 모두를 초청하오니 다들 함께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강사님들과 정겨운 형제자매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임원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여 초청하오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임원들

2009년 성경암송 대회

『범위 : 로마서 1장-5장』

10월18일(주) -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3일(금) - 본선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화) 한국기독교교육추진위원회 임원회에 참여한다.
- 이사 : 박노철 목사 가정 대치1동 1017-1 신구노빌리티빌리지 702호
하영숙 집사 가정(3교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G동 5층 210호
노송성 장로 이영옥 권사 가정 강남구 일원본동 731 한솔마을@107-302T. 2661-1700
- 영전 : 정병수 집사(4교구) 8월1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본부장으로 발령
- 주간식당봉사 : 한나전도회(8월 9일) 리브가전도회(8월 16일)
- 금주의 식사 : 김영준 성도 박인자 집사(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4. 갈빈길 명예도로 시행되도록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